

프레젠티무용단, ‘제34회 광주무용제’ 대상 영예

안무 김현재…‘전국무용제’ 광주 대표 출전

연기상 김민경·김경현, 솔로 이동건 수상도

(사) 대한무용협회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오윤환)가 주관한 ‘제34회 광주무용제’(전국무용제 시 예선)에서 단체부문 대상은 ‘프레젠티무용단’이 차지했다. 연기상은 프레젠티무용단의 김민경, 김경현, 솔로부문 대상은 이동건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프레젠티무용단(안무 김현재·사진)의 ‘몬더그린 이펙트’(Mondegreen Effect)는 낮은 외국어의 소리가 익숙한 모국어처럼 잘못 들리는 착각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인 ‘Mondegreen Effect’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낯설고 익숙함, 거리와 간격, 본질과

왜곡, 그리고 관계에 대한 되물음이다.

심사위원들은 ‘섬세하고 다채로운 신체 언어와 상호반응을 탐색하는 움직임, 그리고 뛰어난 표현력이 인상적이었다’, ‘주제에 대한 해석과 전달력이 우수했으며, 구성 역시 다양하고 창의적이었다’, ‘무용수들의 테크닉이 뛰어났고, 음악과의 조화 속에서 동작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자유분방한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와 규칙이 느껴지고, 동작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돋보였다’ 등의 심사평을 남겼다.

이날 경연에는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흘러가는 대로, Go with the flow’, 에뚜왈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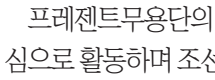


인사를 전하며, 지역 무용계의 위상을 드높인 안무자와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프레젠티무용단이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무용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격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레젠티무용단의 안무자 김현재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초빙객

단의 ‘사이의 공간’, 김유진댄스프로젝트의 ‘The shell’, 황재은무용단의 ‘무언의 빛’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오윤환 지회장은 “대상 수상작인 프레젠티무용단에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무용계의 위상을 드높인 안무자와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프레젠티무용단이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무용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격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레젠티무용단의 안무자 김현재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초빙객

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33회 광주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커넥션’ 선정작인 ‘사람의 형태’를 비롯해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춤추는 극장’ 안무 등을 통해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연은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예술의전당 아트홀 등 대전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무용제’의 광주시 예선으로 진행된 가운데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 프레젠티무용단이 광주를 대표해 출전한다. 역대 광주 대표팀은 전국무용제에 출전해 총 12회의 대상(대통령상)을 비롯해 7회의 금상, 8회의 은상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 무용계에서 꾸준히 실력을 입증해왔다. 프레젠티무용단이 높은 작품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기대된다. 김다경 기자 alsqld94@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제67대 김영수 총재 취임

“많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봉사 단체인 만큼 남부지역 회원들과 함께 모두가 가족같은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겠습니다.”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67대 총재로 최근 김영수 신임총재(사진)가 취임했다.

나주 영산포 출신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소외된 계층에 와이즈멘 회원들과 함께 집 수리 봉사를 수년 동안 실천해 오는 등 ‘실천하는 봉사자’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즈멘 클럽은 192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탄생한 뒤 전 세계 8개 지역 46개 지구로, 국내에는 11개 지구 29지방 250개 클럽으로 구성돼 있다. YMCA를 적극적으로 돕는 국제봉사 단체로 ‘친교·교양·봉사’라는 3대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시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위협 대응

실무자 중심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최근 광주관광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각 기관 직원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보안 수칙을 학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신 보안 위협 동향, 사회공학 기반 공격 사례, 업무 중 실천 가능한 보안 수칙,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시민들에게 공사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보안 수칙 준수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산업현장 노동현안 교육·대응 전략 전회

광주경총, 근로감독 방향·대법원 판례 분석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근로감독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 방향 및 최근 통상임금 이슈를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류관훈 광주고용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추진방향을 주제로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방향과 주요 점검사항 안내 등을 안내했다.

이어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주제로 정기상여금, 성과급, 기타 제수당 등 보상규정 정비, 통상임금 임법화 동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강의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상임금 확대 등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감독 기준과 실제 수검사례 및 관리방안을 공유해 안전하고 불안 요인이 없는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장성 고향사랑기부제 1호 최고액 기부자 탄생

북일면 출신 변화순(주해천케미칼 대표) 2000만원

장성군에 개인 고향사랑기부 한도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변화순(주해천케미칼 대표)가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부했다.

장성군 북일면 출신인 변화순 대표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시작해 주해천케미칼 대표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맡아 여성경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변화순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장성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에 힘을 보태는 기부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준 장성군수는 “기탁하신 기부금은 장성 발



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 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장성=이향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조선대병원, 환자 경험관리 교육 실시

소통·공감 향상…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조선대학교병원은 환자 접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 경험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7일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환자 접점 부서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한 환자 응대 역량 강화와 차별화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로 구성됐으며, 환자 경험과 리더의 주요 역할, 심평원 환자 경험 평가 최신 동향, 부서별 매뉴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조용진 고객 만족팀장(정형외과 교수)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접점 부서 직원 사이의 소통, 공감에 잘 이뤄지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환자 응대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십 안전라운딩’을 매 분기 실시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위기임산부 후원물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엔젤하우스를 방문해 성장앨범 제작 지원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엔젤하우스는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와 출생 아동에 편안한 속식과 정서·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본부는 성장앨범 지원과 함께 철분제, 분유 등 산모와 아동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경제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익산 기쁨의 하우스, 목포 성모의 집, 제주 애서원 등 관할 지역 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후원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본사방문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조진형 " 글로벌대의협력자장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게시판

결론

▲류선용(법무부 의료과)·양효정(순천시청 관광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향란씨의 딸 헤빈(순천 평화병원)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확대피해노인전송팀,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정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7일)

48년생 바다 쪽으로 여행을 가라
60년생 적이 있는 형상이니 언행 조심
72년생 만족할만한 결과가 마무리 된다
84년생 문서가 생기거나 이익을 얻는다
96년생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51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된다
63년생 충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75년생 갖추고 있어야 수용하게 된다
87년생 지나친 의존은 피해를 줄 수 있다
99년생 긴 안목을 갖도록 하라

54년생 노력과 대비례하는 결과가 온다
66년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78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90년생 앞 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57년생 늦 바람이 더 무섭다
69년생 신분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는다
81년생 친구가 오히려 해를 준다
93년생 귀하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

49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61년생 제3자의 말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73년생 사소한 소문으로 일을 놓친다
85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97년생 욕심 부린 만큼 손해

52년생 말을 앞세우면 난패를 볼 수 있다
64년생 오래전에 꾸어준 돈 되돌아올 것
76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88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55년생 자녀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
67년생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79년생 무리한 진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뒷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라

58년생 신용은 중요하니 약속을 잊지 말라
70년생 부부 불화가 있었으니 자중하라
82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94년생 과감하게 도전하라

50년생 복잡한 일로 갈피를 못 잡는다
62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기다리라
74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된다
86년생 라이벌이 될 거래처를 조심하라
98년생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

53년생 문서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어떤 일을 막론하고 순리된다
77년생 지금하고 있는 근심은 해결되리라
89년생 돈 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68년생 돈벌이가 수월하며 문서 들어온다
80년생 몸은 힘들어도 득이 많은 날
92년생 움직일 보다는 기만이 있으나

59년생 불화 생겨 심한 갈등이 생긴다
71년생 추진하는 일 잘 진행이 될 것
83년생 적이 있는 형상이니 언행에 주의
95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갈등한다